

병살 3번·8회 역전패…KIA, 시작부터 꼬이네



개막전, 두산에 1-4 패배…브룩스, 7.1이닝 2실점
‘5회 제외’ 매 이닝 주자 내보내고도 1득점 그쳐
이준영 불넷·장현식 3점포 허용…뒷문 고민 여전

KIA타이거즈의 ‘에이스’ 브룩스가 7.1이닝 2실점의 패전투수가 됐다.

KIA가 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2021시즌 개막전에서 1-4 역전패를 기록했다.

비로 3일 경기를 치르지 못했던 KIA는 4일 예정대로 브룩스를 첫 경기에 투입해 승리 사냥에 나섰다.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며 두산 그리고 잠실 열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초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아쉬웠다.

두산의 새 외국인 선수 로켓을 상대한 KIA가 최원준과 김선빈의 연속 안타로 1회부터 무사 1·2루의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터커의 좌익수 플라이에 이어 최형우의 타구가 유격수 앞으로 향하면서 6-4-3 병살타가 기록됐다.

2회초에도 나지환의 선두타자 안타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류지혁의 땅볼 타구가 2루수 앞으로 향하면서 역시 병살타가 됐다.

두 차례 좋은 기회를 날린 KIA가 3회 2사에서 타진 최원준의 3루타로 마침내 득점에 성공했다.

2사에서 우측으로 공을 보낸 최원준이 3루까지 내달렸다. 이어 김선빈이 초구에 중량을 뚫으면서 팀의 2021시즌 첫 타점 주인공이 됐다.

하지만 이는 이날 KIA의 첫 타점이자 마지막 타점이었다.

5회를 제외하고 매 이닝 주자가 나갔지만, 후속타 불발로 승기를 가져오지 못했다.

선발 싸움에서는 KIA의 승리였지만 ‘뒷심 싸움’에서 밀렸다.

두산 로켓이 5.2이닝 1불넷 2탈삼진 1실점으로 먼저 물러났지만, 브룩스는 7회까지 무실점 피칭을 이어갔다.

1·2회를 삼자범퇴로 연 브룩스는 3회 선두타자 오재원과의 기싸움 끝에 이날 첫 안타를 내줬지만, 김재호를 병살타로 처리했다. 이어 정수빈에게 2루타를 맞았지만, 허경민을 2루 땅볼로 잡고 3회를 마무리했다.

4회를 삼자범퇴로 막은 브룩스가 5·6회에도 선두타자에게 안타는 맞았지만 실점 없이 이닝을 정리했다.

브룩스가 7회에도 세 타자만 상대한 뒤 1-0으로 앞선 8회 다시 마운드로 올랐다.

선두타자 김재호에게 좌전안타를 맞은 브룩스가 정수빈의 희생번트로 1사 2루에 몰렸다. 그리고 허경민에게 우전 안타를 맞으면서 대주자 조수행이 홈까지 들어왔다.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간 뒤 KIA 불펜이 가동됐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페르난데스 상대에 나선 좌완 이준영이 불넷을 내주고 물러났고, 1사 1·2루에서 등판한 장현식은 박건우에게 우측 담장 넘어가는 3점포를 허용했다. ‘한방’에 흔들린 KIA는 9회초 마지막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도 손발이 맞지 않았다. 선두타자 류지혁이 불넷을 골라냈다. 그러나 김호령을 대신해 타석에 선 나지환의 타구가 3루수 앞으로 향하면서 KIA의 세 번째 병살타가 기록됐다.

대타 김민식의 우전 안타와 1루수 포구 실책으로 2사 2·3루까지 만들었지만, 5번째 타석에 들어선 최원준의 방망이가 헛돌면서 경기가 그대로 1-4 KIA의 역전패로 마무리됐다.

KIA는 9개로 안타 개수에서는 두산(8개)에 앞섰지만 중요한 순간에서 이어진 병살타에 막히면서 패배로 2021시즌을 열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홈경기 입장권 5400석 판매

방역 지침따라 전체 좌석 26.3% 판매…요금은 지난해와 동일

KIA 타이거즈가 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2021 KBO리그 홈경기 입장권 판매를 시작한다.

KIA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챔피언스필드 전체 2만500석 가운데 26.3%인 5400석을 판매한다. 모든 구역별 입장 요금은 지난해와 같다.

입장권은 경기 1주일 전 오전 11시부터 티켓링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전화(1588-7890), KIA타이거즈 앱을 이용해 1인 최대 4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단 홈 개막 6연전(9~11일 NC전·13~15일 롯데전)에 한해서는 경기 4일 전부터 오전 11시에 예매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5일 오전 11시부터 9일 NC와의 홈 개막전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좌석 간 1m 이상 간격이 유지되며 가족석, 스카이프크닉석, 예코다이나믹석, 파티석 등 마주 앉는 좌석과 비자정적인 외야석은 판매하지 않는다.

기존 K7석은 K8석으로 좌석 이름이 변경됐다.

경기장에 입장하는 팬은 발열체크와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폴 체크인)를 작성을 해야 한다.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입장이 제한된다.

경기장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화장실과 식음료 대장을 이용할 때에도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KBO는 관중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야구 입장을 위해 간편 전화 체크인 서비스인 ‘폴체크인’을 전 구장에 도입했다.

폴 체크인은 출입명부 기록을 전화 한 통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수기 출입 명부 작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고, 스마트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팬들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입장할 수 있다.

폴 체크인은 KT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지만 하면 3초 내 출입명부 기록이 완료된다.

출입문 배너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가 종료되고, ‘방문 등록이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야구장 입구에서 이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 바로 입장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양현종 비추는 ‘한줄기 희망’

텍사스, 개막 2경기 25실점 2연패…좌완 부진에 콜업 기대감 ↑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 투수들이 정규시즌 개막 후 2경기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며 줄줄이 무너졌다. MLB 입성을 노리는 양현종에게 새로운 기회인 셈이다.

텍사스는 개막전인 지난 2일(한국시간) 캔자스 시티 로열스와 경기에서 7명의 투수가 피안타 5개, 불넷 8개를 내주며 14실점한데 이어 4일 캔자스시티전에서 5명의 투수가 13피안타 4불넷 11실점을 하며 4-11로 대패했다.

텍사스는 두 경기에서 25실점 하며 2연패 늪에 빠졌다. 4일 캔자스시티전에선 불넷 투수들이 최악의 모습을 보였으며, 텍사스 투수들은 개막 후 두 경기에서 참담한 성적을 거뒀다. 등판한 9명의 투수 중 평균자책점 10.00을 넘는 선수는 5명이다. 5점대 미만을 기록한 선수는 한 명도 없다.

특히 좌완 투수들의 부진이 눈에 띈다.

선발 자원으로 분류된 테일러 헨은 2%이닝 4피안타(1피홈런) 2실점 평균자책점 7.71을 기록했고, 양현종과 빅리그 입성을 두고 경쟁했던 볼펜 콜비 엘러드는 1이닝 2피안타(1피홈런) 2실점 평균자책점 9.00으로 부진했다.

불넷 투수 존종도 2이닝 4자책점, 평균자책점 18.00을 기록 중이다.

불펜진 난조는 개막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한 양현종에게 빅리그 입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양현종은 올해 스프링캠프에서 좌완 볼펜 자원으로 분류됐는데, 개막전을 앞두고 아쉽게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현재 양현종은 마이너리그로 내려가지 않고 ‘텍시 스쿼드’에 포함됐다. 텍시 스쿼드에 포함된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방문 경기 기간에 MLB 선수단과 동행하며 콜업을 기다린다.

/연합뉴스



초반부터 병살

4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KBO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2회초 무사 1루 상황 KIA 류지혁의 병살타 때 나지환이 포스아웃 되고 있다.

/연합뉴스

‘브룩스 가족’ KIA 홈 개막 연다



9일 홈 오프닝 시리즈 행사 다양

지난해 가을 교통사고 극복

아들 시구·아내 시타·브룩스 시포

교통사고를 이겨낸 브룩스의 아들 웨스틴이 2021시즌 홈 개막전 시구를 맡는다.

KIA 타이거즈가 오는 9~11일 2021시즌 홈 오프닝 시리즈를 맞아 ‘Be brave, be bold(과감하고 담대하게)’를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9일 홈 개막전 공식 행사는 오후 5시 50분 오프닝 영상 상영으로 시작된다.

원정팀 소개에 이어 올 시즌 그라운드를 호령할 ‘호랑이’들이 차례로 소개된다. 이어 양 팀 감독에게 꽃다발이 전달된다.

비보이 그룹 ‘진조크루’의 공연이 이어지면서 홈 개막전 분위기가 달궈진다.

홈 개막전 시구는 외국인 투수 브룩스의 아들인

웨스틴이 한다. 브룩스의 아내 휘트니가 시타자, 브룩스는 시포자로 나선다.

지난해 교통사고를 겪었던 브룩스 가족은 팬과 선수단의 패용 기원 속에 건강을 되찾았고, 홈팬들을 맞는 첫날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그동안의 응원과 기도에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날 애국가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애써온 최정식·박준성·조경태·정성진·강정석 소방장과 구수현 소방교 등 광주 지역 119 구급대원들이 부른다.

이들은 광주소방학교 생활치료센터 입·퇴소자 관리는 물론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오프닝 시리즈 둘째 날인 10일에는 시구·시타 참여 공모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김종근·윤혜선 예비 부부가 시구를 한다.

김·윤 예비부부는 2018년 챔피언스 필드에서 각자 경기를 관전하다 ‘키스 타임’ 이벤트 카메라에 포착된 인연으로 만남을 시작, 백년가약을 맺게 됐다.

이날 애국가에는 성악가 국두현, 최현주 씨가 담당

하며 밴드 ‘이날치’의 특별 공연도 준비됐다.

11일에는 광주환경보건연구원 감염병 조사과 김태순 주무관이 시구자, 정재근 원장이 시타자로 나선다. 애국가에는 광주문화재단 김홍성 문화공간본부장(바리톤)이 부른다.

경기 전에는 난비벌퍼포먼스 팀 ‘용알스’의 특별 공연이 펼쳐진다.

KIA는 홈 개막 3연전 동안 입장객에게 응원 클래퍼 5000개(1경기 당)와 엠블럼 깃발을 선물한다.

또 나지환(9일), 최형우(10일), 브룩스(11일)가 차례로 ‘랜선사인회’를 통해 팬들을 만난다. 랜선 사인회 신청은 5일 오후 6시부터 KIA타이거즈 앱을 통해 이뤄진다.

한편 챔피언스필드 ‘기아홈런존’에는 기아 준대형 세단 ‘K8’이 전시된다.

KIA타이거즈와 기아는 챔피언스 필드 외야 우측간 잔디석 ‘기아홈런존’을 설치하고, 차량이나 구조물을 직접 맞히는 선수에게 해당 차량을 증정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